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148호 발행일 : 2005년 10월 30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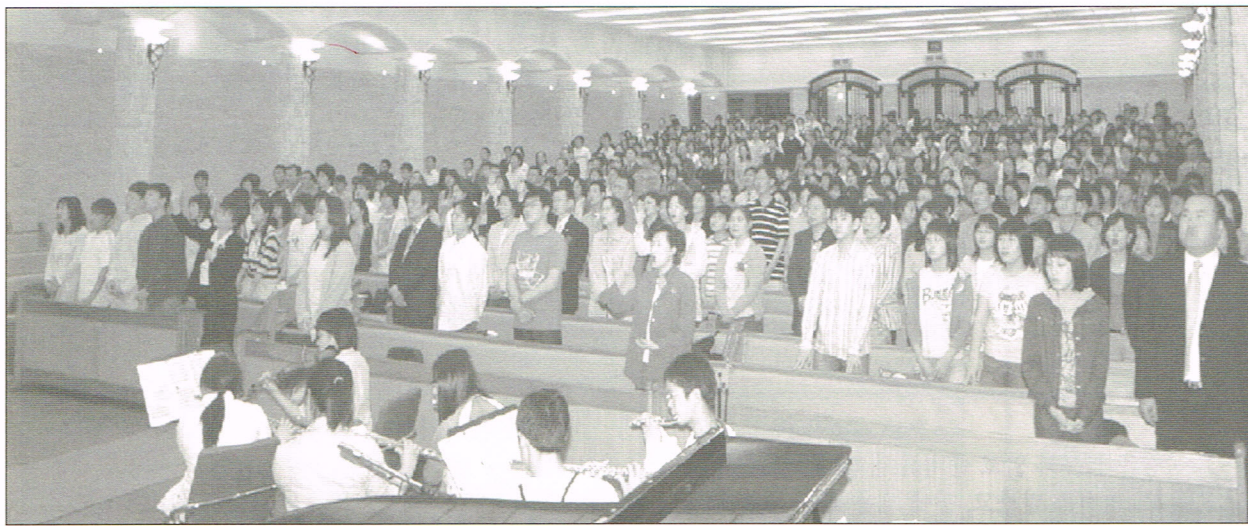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주님의교회 교사훈련원 오늘부터 개강! 다음세대의 영적부흥을 위한 교사 교육 시간 될 터



오늘 오후 3시부터 4주간 교사훈련원 강의가 소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교사로 섬겨왔던 모든 교사들과 내년부터 새롭게 섬기게 될 모든 예비 교사들이 함께 훈련받으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마음에 결정하지 못한 성도들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강의에 오면 내년부터 교사로 사역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목표를 두고 사역해오고 있다. 청소년

들이 살려면 좋은 교사들이 필요하고 전 교육부가 살아야 청소년전문사역도 의미가 있게 된다.

다음세대의 회복의 사역에 귀한 여러분의 동역과 교사로서의 헌신을 기대한다. (4면에서 계속)

6기 중보기도 세미나 열려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9시30분, 29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3층 초등부실에서 중보기도 세미나



가 열렸다. 6기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에는 3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정영환 목사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중보기도는 어렵지 않다고 했다. (3면에서 계속)

3여선교회, 가을 등산을 청계산으로 다녀와

3여선교회는 지난 주간 교회에서 모여 담당 교역자 홍민기목사의 “다윗의 언약케에 대한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신앙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생활하는 신앙인의 삶이 될 것을 당부 받았다. 말씀이 끝난 후 김선례 권사의 인도로 아프고 어려운 교우들에 대한 중보 기도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3여선교회 회원들은 청계산 옥녀봉에서 “오 신실 하신 주”, “주만 바라 볼 지라”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곡조 있는 기도로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감사하며 하산 했다. 이후 맛있는 식사 시간에 즐거운 대화가 넘쳐났다. (2면에서 계속)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사역자 컨퍼런스 열려



가정사역팀은 오는 11월 12일 (토요일) <가정사역자 컨퍼런스>를 장신대 세례교회협력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함께할 사역자가정을 모집하고, 우리교회 가정사역의 방향을 공유하며, 사역자들간의 교제와 단합이다. 가정사역팀은 기존 가정의 치유나 회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더 성숙한 가정이 되도록 돕고 격려하는 차원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을 함께 이루어갈 준비된 사역자 가정을 찾고 있다.

이날 진행될 전체내용은 먼저 소그룹별로 모여 서로 소개하는 시간과, 사역자들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 가정사역의 비전제시, 그리고 친교하며 저녁를 한 후 이병준목사 (지구촌가정사역원총무)의 강의로 ‘부부심리검사’를 통한 도전과 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기도회 및 결단식으로 행사 전체가 마감될 것이다.

참여대상은 부부로서 이 사역에 동참하길 희망하는 주님의교회 전교우들이며, 사전에 기존 가정사역팀에 참여를 희망한 사람들이다. 주로 지난 7월 <주님의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가정사역에 관심을 가져 주셨던 교우 및 8월 21일부터 5주에 걸쳐 주님의 교회 아버지학교를 은혜롭고도 성공적으로 졸업하신 아버지들 부부가 일차 선정이 되었고, 추가로 함께 사

역에 임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정사역에 사역자로 동참하길 원하는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11월 6일(주일)까지 박중순집사 (011-253-2621)와 조선연집사 (017-747-1233)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사역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면 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숙되어, 이 한반도와 온 우주가 밝은 웃음과 평화로 물드는 그날이 올때까지 가정을 주제로 하는 이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사역자 컨퍼런스>를 통해 이 일에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탄생되길 희망한다.

선교지에서 날아온 편지, 코스타리카 금상호 선교사

코스타리카의 금상호선교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온지 만 십년의 세월이 지났고, 11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월초에는 제가 협력하는 이 나라의 복음주의 교단의 목사님들 전체 세미나가 2박 3일간 있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며 선교적인 정보들을 나누고,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때는 연락이 잘 안되는 인디언 지역의 인디언 목회자나 다른 오지의 목회자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연락이 어려운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 일정을 잡아놓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약속된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문시에는 스페인어 성경책과 16과로 된 제자훈련 교제와 4주간의 초신자 교육 교재를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서 교제를 나누고 필요한 도움들을 파악해 가지고 옵니다. 얼마 전에는 현지인 동역자 목사님과 2일간 파나마 국경 근처와 인디언 지역의 교회 12곳을 찾아가서 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방의 한 교회에서 신학을 하지 못하고 목회를 하시는 분

들을 위한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이 2년 과정으로 진행중입니다. 18개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도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내려가서 한 달에 한 과목씩을 마치는 것입니다. 지금 2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내년 5월에 한 곳이 끝나게 되고, 이어서 다른 곳을 준비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시내 외곽에 있는 마약중독자 센터는 자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송어 양식장을 서너개 만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이 양식장에 향어와 송어 새끼들을 천마리 이상 구해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후에는 '할렐루야 찬양선교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필요한 교회들을 방문하여 함께 찬양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에게 유익한 은혜들이 주어지곤 합니다. 지난 주에는 바닷가로 2일간 동역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도 비오는 밤에 찬양의 밤을 가졌습니다. 악기나 앰프 시설이 없거나 미약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찬양팀이 이동할 때는 모든 악기와 장비를 싣고 가느라 일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이민교회를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한 현지인 선교가 아직은 서툰 부분들이 있기는 하

지만, 새로운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 줍니다. 현지인 선교를 해 가면서 더 절실한 것은 안정적인 물질적인 후원과 지속적인 기도의 후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후원과 기도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든든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주님의 교회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임재함으로 느껴지시길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들

1. 현지인 선교의 사역들이 자리를 잘 잡아가도록
2. 마약센터,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구제사역, 찬양팀 사역등의 일이 잘 진행되도록
3. 동역자들의 협력과 필요한 선교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2005년 10월 26일 코스타리카에서 금상호 드림

구역모임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4교구 17구역은 교회와 거리가 멀어서 평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 매 주 주일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5층 중보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는 구역장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아닌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되어 성도 개개인이 교제 공부를 준비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교제는 예수전도단 제자훈련 성경 공부 시리즈, '성령님을 체험하는 삶'이다.

지난 주일(23일)에는 3과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제목으로 누가복음24장1절~32절까지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이 정작 눈 앞에서 실현되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를 나누었다.

한 집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만지게 해달라는 간구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고백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향해 밝아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참 빛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영혼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구역 식구들은 서로 나누는 예배 시간을 위해 예배와 복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성경을 꼼꼼히 읽고 준비하여 참석한 후 말씀을 듣고, 의견을 말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집에 가서 또 복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간의 교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역 식구들이 같이 주일 새벽, 국수 봉사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새벽 5시부터 준비를 하는데, 국수 맛을 위해 진한 국물을 길게 우려내는 것이 비결이며, 이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1부 예배의 국수가 진국이라는 소문이 났다고 말하며 다 같이 웃었다.

힘든 봉사를 같이 하니 구역 식구들 간에는 자연스럽게 끈끈한 성도애가 넘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구역 예배 시간에는 항상 '구역 모임의 7가지 길라잡이'를 먼저 읽은 후 예배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 원칙이 꼭 지켜져야 서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중보 기도가 참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구역 모임의 원칙을 성실히 지키고, 교제에 대한 예수님과 복습도 철저히 하고 있는 417구역 모임 식구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져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깊이 있게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1면에 이어서)

3여선교회, 가을 등산을 청계산으로 다녀와

이어진 회계 보고에서는, 나눔의 집 (장애인)에 10만원을 후원 했으며, 서울 의료원에 행려병원들의 신발 (슬리퍼)과 치료 받은 후에 나갈 때 입을 옷으로 추리닝 10벌을 준비하여 기증하고,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바자회를 도왔다.

다음 모임은 11월 여선교회 연합모임으로 모이게 된다. 결의된 사항으로는,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리스 만들어 가져 가기(비용은 회비, 자비 반반으로), 11월19일(셋째 수요일) 3여선교회 문화생활로 연극(예맥) "흔적"을 4시 공연에 함께 관람하기로 함, 12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 준비하는 날, 매월 셋째주일은 교회 주방 봉사하는 날로 3여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봉사하는 날이다. 이승숙 권사는 "우리 3여선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봉사하는 은혜 충만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자"는 말로 전체 모임을 마무리 했다.

4부 예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면 믿겠어요"

교회와 예배가 낯선 이웃들을 위한 4부 예배에는 특별히 "오늘"을 통하여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신 성화대학 사회체육학과 백순기 교수가 그의 문하생을 통하여 라틴댄스 시범을 보인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면 믿겠어요"라는 주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어필할 것이다. 한편 이 주제에 맞춰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에게 또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예정이다.

PTP에서 받은 은혜(4) / 신앙기고문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고교 2학년인 아들과 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들은 제가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교회생활을 즐거워하고, 학업에도 열심이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 특별히 이러한 학부모 기도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기도모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하고 부족한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홍민기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저는 “자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때때로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기는 하였으나 PTP기도모임에서처럼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며 비록 자녀가 현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소망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홍민기 목사님께서 여러번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 중 우리교회가 청소년사역에 매진하고 부모와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바른 목표를 설정하여 지도해나가면 우리 주님의 교회 자녀들이 이 나라의 주춧돌이 되고 대한민국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는 인재들로 성장할 것을 확신한다는 강한 메시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찬양인도와 모임에 참석한 분들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말씀 중에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고 본받으며 성장해간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본받을 만한 아버지의 모습을 갖추었는가 과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에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을 까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숨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나의 생활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을 기도시간에 회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PTP 기도모임은 함께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머니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버지들의 참여는 부족한 편입니다. 참여인원이 늘어나면 중예배실로 장소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봅니다.

- 이진걸 집사 -

(1면에 이어서)

6기 중보기도 세미나 열려



이 세미나를 통해 중보기도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고 중보기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졌다. 강의 내용은 중보기도 사역,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병든자를 위한 기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등이다.

이 세미나를 수료한 후에는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

은 11월 5일 오후 2시 담담목사와 면담한 후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둘째날의 토요일에는 중보기도 사역팀의 6명의 팀장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강의 중간에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수료하면서 각자 소감문을 작성하고 마쳤다.



길가에교회의 주변 환경

길가에교회가 들어 설 남양주시는 1995년 시 승격 당시 23만 명이던 인구가 2005년 9월 현재 44만 명에 이르고 있다. 2006년에는 60만 명의 인구로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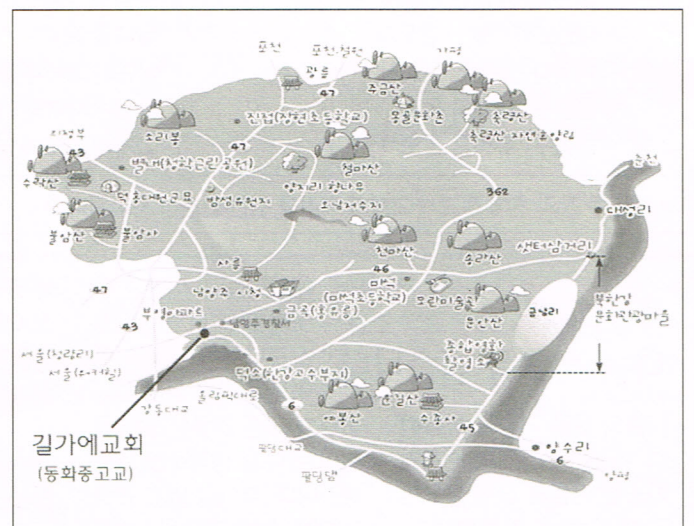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감소추세에 비하면 폭발적인 인구증가이다.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교육 문화 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39개,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9개가 있는데 앞으로 각각 12개, 7개, 12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길가에교회와 함께 하는 동화중고등학교는 기독교학교로 남녀공학이며, 특히 동화고등학교는 시험을 통해 들어가는 명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 찾아오는 길 (지도 원편 중간, 구리시에 인접해 있음)

- ①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가 구리 표지판을 보고 들어가 강동대교를 건너 구리톨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남양주시로 나와서 도농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1km 정도 직진하면 남양주경찰서 못 가서 우측에 동화중고등학교 나옴. 길 건너편에는 부영아파트와 도농역이 있음. 잠실에서 자동차로 15~20분 거리.
- ② 강변북로 타고 가면 토평강변로로 이어짐, 계속 직진하여 수석교를 지나 남양주시 종합운동장을 오른편에 두고 지나 남양주시 법원(남양주 경찰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700m정도 들어오면 왼쪽에 동화중고등학교 나옴. 동서울터미널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

- ③ 오는 2005년 12월 20일 도농전철역 개통 (길가에교회 창립예배: 2005년 12월 11일).



교육부 전교역자 수련회 가져

지난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교육부 전교역자 수련회가 있었다. 담당목사인 홍민기목사와 함께 싹트네(통합유아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레인보우(통합아동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어와나클럽을 담당하고 있는 13명의 교역자들이 참석했다. 21일 아침 경기도 양수리로 향했다.

이번 수련회는 2005년 교육부를 돌아보며, 2006년 교회학교와 어와나클럽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각 부서 교역자들의 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2005년 하나님께서 교육부에 주신 비전인 '회복'에 대해 묵상하며, 한해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2006년에도 교육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의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다.

2005년은 홍민기목사가 교육부에 부임한 첫 해였으며 많은 씨뿌림과 열매가 있는 한 해였다. 홍민기목사는 한국교회에 있어 믿음의 차세대를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교인들을 강하게 도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주님의교회 안에는 교육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열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교육부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학부모와 교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무르고,

그분께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며 또한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함을 다시한번 일깨우며 홍민기목사는 학부모-교사 기도회(PTP)를 시작하였으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PTP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홍민기목사의 강한 도전의 말씀으로 이어졌는데 매주 이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새롭게 마음을 확정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 기도회에서 뜨겁게 드러졌던 기도들은 이제 조금씩 그 열매들을 키워내고 있다.

2006년 교육부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힘차게 준비하고 나아가려고 한다. 각각의 모든 부서를 맡은 교역자들은 맡은자로서의 사명을 겸허하게 감당해 나갈 것이다.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주간 교육부에서는 교사훈련원 강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교회학교에서 사역하는 모든 교사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교회 교육부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2006년을 놀라운 부흥의 해로 삼고자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교육부는 2006년도에 교회학교에서 함께 이 놀라운 비전을 품고 섬길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명령은 교역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임을 기억하며, 교회학교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부 야외 헌신예배



지난 주일(10월 23일) 유아부 어린이들은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다. 파란 하늘과 따사로운 가을 햇살, 그리고 수줍게 웃을 갈아 입는 울긋불긋 나뭇잎들과 함께 아침에는 날씨가 쌀쌀해서 걱정했지만, 다행히 낮에는 날씨가 풀려서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모두 오랜만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담당 전도사와 세 명의 교사들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라는 은행잎, 단풍잎, 감나무잎, 아기 바람의 인형극을 보고, 2부 순서로는 아이들이 직접 낙엽을 주워다가 멋지게 왕관을 만드는 "낙엽 왕관 만들기"를 했다. 신나게 낙엽을 주르러 다니고, 단풍잎 같은 조그만 손으로 예쁘게 왕관을 장식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교사들도 덩달아 신이 났던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추울까봐 돗자리 위에 매트까지 준비해서 두둑하게 깔아주는 교사, 우유가 들어간 따끈한 코코아를 준비해서 나눠주는 교사 등. 여러 교사들의 세심한 배려로 더욱 빛이 났던 유아부 야외예배였다.

(1면에 이어서)

주님의교회 교사훈련원 오늘부터 개강! 다음세대의 영적부흥을 위한 교사 교육 시간 될 터

강 사	교육 내용
첫째주 홍민기목사(주님의교회 교육목사)	교사의 사명
둘째주 홍민기목사(주님의교회 교육목사)	교사의 사역
셋째주 노진아전도사(전 총신교회 아기학교 전도사)	영유아 찬양과 체조
대상: 싹트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교사	
김도일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교수)	교사 지도력 개발
대상: 레인보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와나 교사	
윤형진목사(인천계산교회 교육목사)	효율적인 청소년 반복회
대상: 중등부 고등부 교사	
넷째주 각부서별로 모임이다	
싹트네 김수연 전도사	"영유아 어린이 발달이해와 기독교 교육"
영아부 주선영 전도사	"영아기 어린이 발달이해와 기독교 교육"
유아부 최인영 전도사	"유아기 어린이 발달이해와 기독교 교육"
유치부 김성민 전도사	"6,7세 어린이교육을 위한 교사은사 개발"
유년부 이진화 전도사	"8,9세 아동발달 교육론"
초등부 김용철 전도사	"초등부 어린이사역, 이론과 실제"
소년부 김종원 전도사	"책별 성경공부 지도개발"
레인보우 우병선 전도사	"일대일 교육"
어와나 유영안 전도사	"어린이 교육과 훈련"
중등부 이재욱 목사	"청소년 사역의 이해"
고등부 유성훈 전도사	"교사의 기도와 영성"

※ 넷째주 강의 후에 전교사 교제와 격려를 위한 만찬이 준비됩니다.

복지선교부, 나눔의 물품 받습니다

나눔의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깨끗이 손질하여 주시면 따스한 마음과 함께 필요한 곳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작은 정성 하나

하나가 다른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면 흐뭇해집니다. 작아서 입지 못하는 의류, 신발, 기타 우리생활

에 필요한 나눔의 물품을 한 점이라도 주시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성껏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시: 11월 6일(다음 주일)
장소: 1층 로비

청년부 박수용 장로 특별집회

뜨거운 열기 가운데 마쳐



지난 주일 두 번째 '그들이 온다' 청년특별집회 시리즈의 강사로 초청된 박수용 장로와 함께 한 예배와 특강에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와 웃음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예배 시간에는 청년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도전하고 직업 선택과 진로 결정에 있어서 세상의 성공 기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세대가 되기를 도전하고 자신의 삶의 여정을 소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은 비전의 길을 나누어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었다. '영원한 청년 박수용의 자기 경영'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있다.

또한 박수용 장로는 오랜 시간 이성교제와 결혼, 부부관계를 위한 특강 강사로 세계를 다녔으며, '우리 사랑

할까요'라는 책을 출판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들의 이성교제와 배우자를 위한 기도, 부부관계까지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는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성적 타락으로 망가져가며 나라의 미래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청년들이 성적인 울무에 빠져 비전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탄의 유혹에 무너져가고 있음을 안타까이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성교제와 결혼이 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며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였다. 예배와 특강 이후 박수용 장로는 자신의 책에 직접 싸인을 해주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도 알려주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도록 하여서 친근감을 더하였다.